무등산 증심사, 어린이 야단법석 펼치다

5월 12일, 어린이 행복 놀이마당 개최

댄스대회·명랑운동회 열려
부모 참여한 놀이도 '인기'
템플 체험권 등 선물 푸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년가람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에서 아이들을 위한 야단법석을 열었다.

5월 12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어린이와 학부모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증심사 어린이 행복 놀이마당'을 개최했다.

'아이들아, 무등산에 모이자!'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무등산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함께 뛰놀고 즐길 기회를 제공했다.

최근 열린 증심사 행사 중 가장 많은 어린이가 참여했으며, 행사 2시간 동안 증심사에는 아이들의 함성과 즐거움, 행복함이 경내를 가득 메웠다.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증심사는 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가족들이 다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행사는 어린이 댄스대회로 시작했다. 익숙한 음악이 나오면 10~20여 명의 아이들이 무대로 나와 춤을 추는 놀이이다. K-팝 음악 총 10곡이 무작위로 재생됐고,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아이들이 저마다 춤을 선보여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명랑운동회에서는 '고리던지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술래놀이' 등이 진행됐다. 아이들의 부모님이 참여하는 놀이도 인기를 끌었다. 아버지는 '알낳기', 어머니는 '모래주머니 컬링'으로 가족 경연에 함께했다.


비누방울로 멋진 공연을 선보인 버블쇼에 아이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단연 아이들의 관심을 끈 건 매직 마술쇼와 버블쇼 공연이었다. 환상적인 공연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시간이었다. 특히 무대와 객석에서 이뤄진 버블쇼에서는 아이들이 다양한 크기의 공기방울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참가자들은 본 프로그램 이외에도 키다리 삐에로 아저씨의 풍선 만들기, 솜사탕, 팝콘, 페이스페인팅, 물렛, 어린이 소원등 만들기, 지화연꽃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겼다.

증심사에서는 아이들에게 템플스테이 가족 체험권, 어린이 소원등, 단주 등의 상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날 부모님과 함께 참여한 지산초등학교 이수연 어린이는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라며 엄지 손가락을 번쩍 들어 자랑했다. 함께 온 부모들도 "아이와 함께 사찰에 처음 와보는데 시설도 너무 좋고 선물도 많았다. 아이와 함께 좋은 추억을 갖고 가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금 특별했던 정광학원 부처님오신날

5월 13일 봉축기념식…뉴진 스님 EDM 공연 '눈길'

불교 종립학교 청소년들에게 평생에 남을 특별한 봉축행사가 열렸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광주 유일의 불교 종립학교인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스님, 화엄사 주지)은 5월 13일 교내 룸비니관에서 봉축기념식과 함께 특별공연을 개최했다.

정광학원 산하 정광중(교장 정겸심), 정광고(교장 영일 스님)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불교계의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 사진)'이 EDM 공연을 펼쳐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사진〉



여기에 이사장 덕문 스님이 2000여 명의 전교생에게 햄버거를 선물했고, 동문회와 지역불교계가 총 1억 1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해 더욱 있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덕문 스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 중 부처님이 아닌 사람은 없다. 내가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광에서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두가 부처님의 식구라는 생각으로 늘 함께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강진 백련사, 고려 八국사 다례재 봉행

5월 12일, 학술대회도 개최

고려 무신정권으로 인해 피폐해진 국민의 평안을 위해 결연히 일어난 백련결사의 의미를 계승하는 행사가 열렸다. 강진 백련사(주지 설도 스님)는 5월 12일 경내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제16회 만덕산 백련사, 고려 팔국사 다례문화재'를 개최했다.〈사진〉



주지 설도 스님은 "과거 1000여 년 전 나라 안팎이 혼란했던 시기, 부처님의 말씀대로 부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자 주장했던 백련결사가 이곳 백련사에서 일어났다"며 "종교의 틀을 벗어나, 진정한 결사의 의미를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되돌아보며 다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자리가 오늘 여기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백련사는 오후 1시부터 경내 만경루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해 백련결사와 백련사, 팔국사의 의미를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밀양불교사암연 봉축탑 점등 및 방생법회

밀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진각 스님, 표충사 주지)는 5월 11일 밀양시 남천강변 야외음악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 및 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밀양불교연합회장 진각 스님은 "부처님의 탄신을 맞아 참된 마음의 평화를 얻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불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양불교연합회 고문 진덕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이 밝혀 놓으신 진리와 자성의 법등을 이어받아 일체중생의 안락을 위해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 주요 사찰들 봉축법요식 봉행

5월 15일, 금산사 · 선운사 등 청소년 불자에 장학금 전달도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제24교구본사 선운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주요사찰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전북지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금산사는 부처님오신날인 5월 15일 경내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사진〉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오늘 우리가 밝힌 자비의 등불은 좌절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만해진 사람들에게는 참회의 눈을 뜨게 해 자기를 낮추는 '하심'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불교적 인간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사는 데에는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는 것만이 행복의 길"이라고 설했다.

금산사는 동국대사범대학 부속 금산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오후 금산사 특설무대에서 경로위안잔치가 열렸다. 금산사 경내에는 전통판화체험, LED 연꽃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조계종 24교구 선운사도 이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헌화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에 이어 모범불자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임종혁 선운사 전 신도회장과 최병철 종무실장이 수상했다. 포교원장상은 선운사 선운다회장, 조계종 24교구장상은 김애숙, 소설애 불자가 수상했다.

군산대 불교학생회 학생들에게는 선운사와 신도회가 마련한 장학금도 전달됐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며,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어가는 것이다"며 "오늘 연등을 밝힌 그 마음처럼 모두가 자비스러워지기를, 좀 더 평안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몸이 아프고 고통으로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평안과 안락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진안 마이산 탑사, 정읍 내장사. 부안 내소사 등 전북지역 주요 사찰에서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법요식과 경로잔치,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불교聯 연등축제·시민 봉축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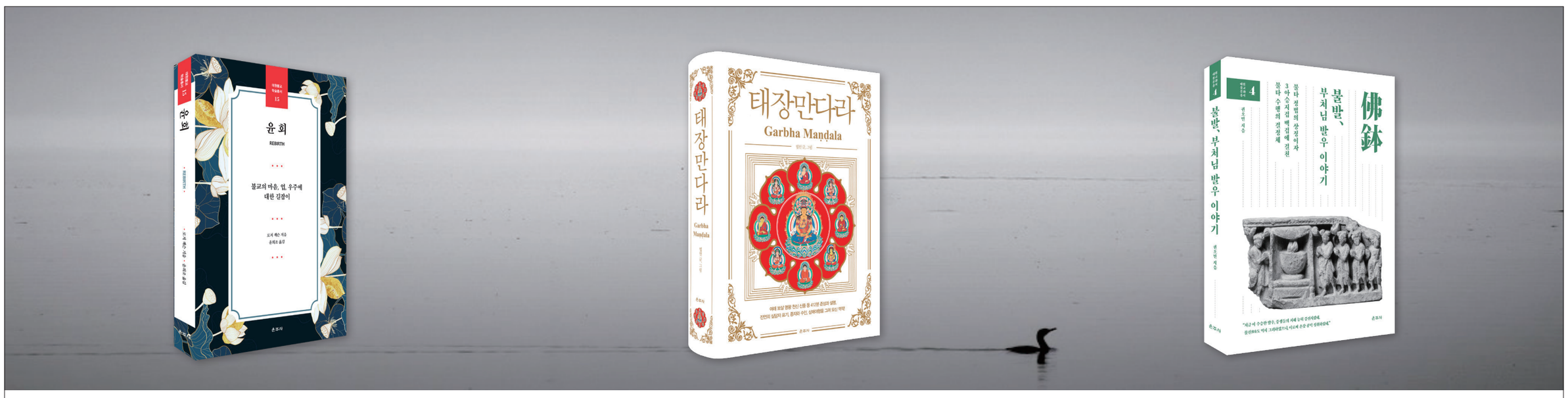
5월 11일 마산 해양누리공원서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 성주사 주지)는 5월 11일 마산 해양누리공원에서 연등축제 및 봉축음악회를 봉행했다.〈사진〉



정인사 원행 스님은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의 봉축법어를 대독하며 "어떠한 허상에 속지 않고, 한 중생도 외면하지 않는 대지혜인·대자유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봉축음악회에서는 조장혁·박주희 등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물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윤회는 실재하는가, 방편인가?'

윤회

불교에서 윤회에 관해 다룬 최초의 포괄적인 안내서이자, 윤회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을 역사적 맥락에서 다룬 최초의 이론적 연구서이다.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신국판/무선/408쪽/값 25,000원

『대일경』에 근거한 태장만다라의 412분 존상 재현!

태장만다라

중대팔엽원부터 외금강부원까지 12부원을 도상화하고, 412분 존상에 대해 의미와 형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진언과 실담 범자, 종자, 수인, 삼매야형 등을 부여.

법헌 글 · 그림/사륙배판/양장/컬러/688쪽/값 100,000원

불타 수행의 결정체이자 정법의 상징인 불발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경전 속 묘사부터 의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발우를 둘러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불발을 주제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이다.

권오민 지음/사륙배판 변형/무선/컬러/544쪽/값 3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